

# 요한일서에서의 ‘코이노니아-조에’<sup>1)</sup>의 상관적 이해를 위한 의미론적 연구

김상훈\*

## 1. 들어가며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이해를 중심으로 한 성경 연구는 그 특성상 언어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실제로 언어학의 발전은 원어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 11년 전에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에서 출간된 로우-나이다의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은 현대 언어학에서의 ‘의미론’ 이해의 발전을 신약 그리스어 어휘 연구에 실용화한 괄목할 만한 개가라 할 수 있다. 또 최근에 출판된 그리스어 문법 교재들<sup>2)</sup>도 현대 언어학의 성과와 깊은 관련이 있다. 현대 언어학적 접근은 앞으로 성경 원문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 2. 현대 언어학의 성과와 성경 원문 연구

소쉬르(F. de Saussure)와 촘스키(Noam Chomsky)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 언어학의 발전적 성과를 성경원문 연구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의 세 가지 점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 2.1. 동시적 이해로의 전이

---

\* 평택대학교 신학과 교수, 신약학.

1) 이 글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코이노니아’(사귄)와 ‘조에’(생명)는 편의를 위해 그리스어를 한글로 음역하여 사용하려 한다.

2) 예컨대, W. D. Mounce의 두 책 *Basics of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1993)과 *A Graded Reader of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1996), 또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등이 그리스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언어학적 시각에서 쓰여진 문법책들이다.

언어의 통시적(diachronic) 이해에서 동시적(synchronic) 이해로의 전이가 있었다. 언어학 연구의 주제가 통시적에서 동시적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였다. 이 일은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다.<sup>3)</sup>

동시적 개념을 성경 어휘론 연구에 실제적으로 끌어들이는 이가 1960년대 이후 제임스 바아(James Barr)와 모세 실바(Moises Silva)였다.<sup>4)</sup> 20세기 초반에 본격화한 언어학의 동시적 접근방식이 성경원문 연구에는 반세기가 지난 후에야 접목이 된 것이다.

이렇듯 언어의 역사적(통시적) 관계보다는 현재적(동시적) 관계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으로 현대언어학은 흘러 갔지만, 그럼에도 성경 원문 연구의 어휘 등의 연구에 역사적 이해의 중요성이 약화된 적은 없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동시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신학자들에 의해 제대로 소개되고 연구되지 않았던 것, 둘째는 성경이 역사적인 문헌이기 때문에 통시적 이해를 무시할 수 없다는 데에서도 기인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시적-동시적 패러다임의 병행적 이해는 성경 어휘 연구의 근간이 되는 틀이다. 이 두 가지의 접근은 서로 보완하여 본문의 어의를 보다 명료하게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동시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어휘론 연구가 상대적으로 등한히 되었던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 논문은 주로 어휘 연구에 대한 '동시적' 관점을 가지고 쓰고자 한다.)

## 2.2. 구문론과 의미론의 연계적 발전

구문론에 대한 이해는 이제 구문론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의미론 연구와 깊게 연계되는 것이 최근 언어학의 특징이다.<sup>5)</sup> 특히 성경원문 연구의 언어학적 성과를 내고 있는 본문분석학<sup>6)</sup> 분야에서는 구문론과 의미론의 연결성을 상당히 강조해

3) G. Sampson, *Schools of Linguistics: Competition and Evolution* (London: Hutchinson, 1980), pp. 13-15, 243. 20세기 초반에 '역사언어학'(historical linguistics), 또는 '통시언어학'(diachronic linguistics)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학자가 소쉬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R. de Beaugrande의 *Linguistic Theory: The Discourse of Fundamental Works* (London & New York: Longman, 1991), pp. 7-8, 16-18을 보라.

4) J. Barr,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Oxford University, 1961); M. Silva,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Academic, 1983).

5) 구문론보다는 의미론을 축으로 삼은 학파 가운데 '생성의미학과'(Generative Semantics)가 있다. 그러나 결국 견고한 구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의미론을 발전시킨 촘스키파(Chomskyians)에 밀려서 지금은 소멸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R. A. Harris, *The Linguistics Wars* (Oxford University, 1993)을 보라.

6) discourse analysis. '강화분석학'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필자가 '강화' 보다는 '본문'이라

왔다고 할 수 있다.)<sup>7)</sup> 본문분석학을 중심으로 한 원전 이해의 구문론 - 의미론적 이해는 단어 하나 하나씩을 연구하는데 집중하는 어휘론 중심의 본문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서 '구'와 '문장'의 단위나 그 보다 더 큰 단위들(단락, 장, 전체 문서 등)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문맥을 통한 본문 이해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본문 해석의 수단이다.

### 2.3. 실용학의 등장

언어학에서 실용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80년대<sup>8)</sup> 이후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언어학 이론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Speech-act theory'나 언어의 기능<sup>9)</sup> 또는 언어적 수행<sup>10)</sup>을 강조해 왔던 언어학의 한 쪽 흐름이 실용학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근거가 짧다고만 할 수 없다. 어떤 점에서 '현대 수사학'과 연계성이 있는데 이는 현대 수사학이 언어적 효과와 성취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현대 수사학은 본래 언어학의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고대 수사학'의 재발견<sup>11)</sup>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의 언어적 수행을 중시하는 언어학과(프라그 학파, 런던 학파, 실용학 등)의 중흥과 비슷한 시점에 언어의 설득력과 효과를 부각하며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이론으로 간주되기 힘들다. 한 쪽은 언어학에서 또 다른 한 쪽은 고대 수사학 연구에서 출발했으나 모두 언어의 효과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것이다.

수사학적 연구는 현재 구약학, 신약학 연구에서 많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언어학에 기반을 둔 실용학적 이해가 성경 연구에 적용된 경우는 많지 않다.<sup>12)</sup> 또한 수사학과 실용학을 연계한 연구도 거의 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은

는 말로 번역하는 이유는 'discourse'가 점차 '강화(講話)'에 한정되지 않고 연설, 대화, 문서 등 모든 언어적 표현에 대한 '본문' 연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이 본문분석학은 미국, 남아공,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영국 순으로 각각 발전해 왔다.

7) J. Reed, 'Discourse Analysis as New Testament Hermeneutic: A Retrospect and Projective Appraisal', *JETS* 39/2 (1996), p. 236. 특히 J. P. Louw의 *Semantics of New Testament Greek* (Philadelphia: Fortress, 1982)은 구문론과 의미론의 연결시도가 뛰어난 책이다.

8) G. Leech의 *The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1983)은 '실용학'의 교과서적인 책이다.

9) 기능을 강조해온 언어학파들은 프라그 학파와 런던 학파 등이 있다.

10) 수행은 능력(competenc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쉬르와 노암 촘스키로부터 나온 개념이다. 촘스키는 언어적 '수행' 보다는 언어사용의 보편적 '능력'을 강조했던 인물이다.

11) C. Perelman과 L. Olbrechts-Tyteca의 *The New Rhetoric: A Treatise on Argument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1969)이 현대 수사학을 새롭게 일으킨 책으로 인정되고 있다.

12) J. G. du Plessis의 *Clarity and Obscurity: A Study in Textual Communication of the*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들이다.

현대 언어학적 성과와 관련해서 성경본문 연구에 언어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유익한 점이 적지 않다. 그것은 본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저자의 의도를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고 또한 본문 이해의 결과를 회중들에게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도 유익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언어학과 관련된 세 가지 성경 연구의 새로운 흐름이 해석학과 함께 설교학에 까지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sup>13)</sup>

본 논문은 특히 어휘론 이해에 있어 동시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한 가지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현대언어학적 이해의 적용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밝히는 데 더 효과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어휘 연구를 기존의 통시적인 입장에서 보다는 동시적인 입장에서 다룸으로써 새로운 본문 어휘 연구의 가능성을 보이도록 힘쓰겠다. 요한일서의 코이노니아와 조예를 다루면서 어휘론 연구에서의 동시적 의미론 이해의 관점을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어휘가 요한일서 내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 3. 로우 - 나이다의 '의미론적 영역'

#### 3.1. 로우 - 나이다의 사전과 '의미론적 영역'

앞서 말했듯이 로우(Johannes P Louw)와 나이다(Eugene A Nida)가 1988년에 새로운 형태의 사전을 발표하면서 성경 어휘 연구의 동시적 관점의 연구 체계를 세웠다. 이 사전은 성경어휘에 대한 동시적 연구의 개가를 드러낸 첫 번째 사전이다. 이것은 어휘 연구에 대한 의미론적 이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즉, 사전 편찬에서 '의미론적 영역'을 사용한 로우와 나이다의 입장은 어휘론의 동시적 이해의 우위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추적하는 통시적인 어휘 이해에 중점을 두는 바우어<sup>14)</sup>의 사전류보다는 특정 어휘가 문맥에

*Relation Between Sender, Parable and Receiver in the Synoptic Gospels* (University of Stellenbosch, 1985)이 실용학을 성경 연구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서라 할 수 있다.

13) 최근에 설교학과 관련해서, 구문론과 의미론에 근거한 귀납법적 성경 연구가 실용화 단계에 있다. G. G. Fee의 *New Testament Exegesis: A Handbook for Students and Pastors* (Louisville: Westminster, 1993) 등이 그 같은 책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성경연구원](Seoul Bible Institute)이 구문론과 의미론을 기반으로 해서 개역성경을 분석하고 강해설교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야고보서」 「빌립보서」 등이 출간되었다.

14)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W. F. Arndt & F. W. Gingrich (trans. and adapt.) (University of Chicago, 1979).

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부각시킨다. 문맥의 쓰임새를 떠난 어떤 단어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사전적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문맥 안에서만이 그 단어의 쓰임새의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단어가 쓰인 용례에서 그 단어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입각해서 로우-나이다의 사전은 철저히 용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바우어의 사전 등이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해서 각 어휘의 개별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로우-나이다의 사전은 비슷한 뜻을 가진 어휘들을 크게 세 가지의 기본 그룹(대상물 또는 실체들; 사건들; 추상적인 것들과 문법적 관계에 있는 것들)으로 분류했고 전체적으로는 93 항목의 주제별 카테고리로 구별했다는 데 차별이 있다. 그러나 이 사전이 비슷한 뜻을 가진 어휘들을 단지 동의어군을 따라 주제별로 배열한 데 그치지 않고, 의미 영역이 유사하게 사용된 어휘들을 모을 때 같은 단어라도 용례와 뜻이 다르면(즉,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영역에 다시 출현시켰다. 이런 경우 한 단어가 여러 영역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다른 용어지만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함께 묶어 놓았다. 이렇게 해서 ‘동일어휘의 다른 의미’(different meanings of the same lexical item)와 ‘서로 가깝게 연결된 의미를 가진 다른 어휘’(different terms with closely related meanings)를 모두 잘 살필 수 있게 했다.

κοινωνία, ας f	ζωή, ἥς f
a fellowship . . . . . 34.5	life . . . . . 23.88
b share . . . . . 57.98	ζωή: unit
c willing contribution . 57.101	ψυχή ζωής
	living creature . . . 4.1

이렇게 로우와 나이다는 주로 개별 어휘 연구를 위해 ‘의미론적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코이노니아’와 ‘조에’ 연구와 관련해서 이 사전은 이 용어들이 신약에서 어떤 의미군들에 속해 사용되는지 말해준다.

로우-나이다 사전 두 권 중 두 번째 것은 인덱스 용이다. 인덱스에서 코이노니아와 조에를 찾아보면 위와 같이 나와 있다. 코이노니아는 모두 세 가지의 용례로, 조에는 보통 한 가지 용례로 사용되지만 ψυχή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코이노니아의 용례는 각각 ‘사귄’, ‘뭉’, ‘자진해서 내는 공헌’의 뜻으로 쓰인

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세 군데를 다 찾아 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한일서의 용례는 첫 번째의 '사귄'이라는 항목(34.5)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항목은 크게 '34 교제'(associatioin)의 첫 번째 '교제하다'(associate)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34.5의 코이노니아 항목은 먼저 코이노니아의 개괄적인 뜻을 소개하고 요한일서 1:3을 용례로 들었다. 이 사전은 코이노니아를 '밀접하게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갖는 사귄 또는 함께 연루되는 것, 즉 '밀접한 교제, 사귄'으로 정의한다. 반면에 조에는 '23 생리적 과정과 상태'(physiological processes and states)의 여섯 번째 항목인 '살다, 죽다'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23.88에서 '살아 있는 것, 사는 것, 생명'이라 정의하고 몇 가지 용례를 소개하며 해설해 놓았는데 요한일서의 용례는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용례의 해설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로우-나이다의 사전을 통해서 코이노니아와 조에의 간략한 사전적 의미를 찾았는데 통시적 연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단순화 된 것처럼 보여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코이노니아-조에의 성경 전체를 통한 의미나 이 용어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찾고자 한다면 통시적 시각의 사전(바우어의 GNT나 키텔의 TDNT<sup>15)</sup> 등을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코이노니아-조에의 용어 자체의 의미를 요한일서 내에서 이해하는 데에는 이 로우-나이다 사전이 실제적일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도 두 용어와 관련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 3.2 '의미론적 영역'의 확대

그렇지만 본인은 그것으로 요한일서에서의 코이노니아-조에의 의미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두 용어가 분리된 의미를 가지고 본문에 독립되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본문 내의 다른 유사하거나 대조되는 다른 용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계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의 '코이노니아-조에'의 어휘 연구는 다른 유사한 (또는 대조되는) 용어와 표현들과의 상관적 관계를 통해서 살펴져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코이노니아-조에 이 두 어휘의 상관성도 함께 연구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이 통시적 연구의 관점이다.

15) G. Kittel & G. Friedrich,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 W. Bromiley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74).

이런 점에서 개개 용례에 대한 고찰에서 그친 로우-나이다의 사전적 이해를 본문 연구에 적용할 때는 해당 본문 내의 단어들 상호간의 '유사성 관계'에 대한 연구로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저자가 코이노니아-조에 이슈를 중시했다면, 이 두 용어와 관련된 용어(또는 표현)들을 본문 내에서 반복해서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언어적 상식이다. 이 같은 유사 용어 또는 표현들은 본문 내에서 특정한 관계를 갖고 의미를 만들어 간다. 그러므로 특정 단어 하나 하나의 이해에 멈추지 않고 본문내에서 단어-단어 또는 표현-표현 간의 관계를 염두에 두는 해석을 해나갈 때 우린 저자가 뜻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보다 정확히 해석해 낼 수 있는 것이다.

#### 4. 요한일서에서의 '코이노니아 - 조에' 연구

##### 4.1. '코이노니아 - 조에'의 우선권 논쟁

요한일서의 연구 가운데 '코이노니아-조에' 우선성 논쟁은 유명하다. 즉 두 가지 어휘 중에 어떤 것이 요한일서에서 더 중요한 용어인가 하는 것이다. 이 논쟁은 1:3과 5:13에서 각각 대표되는 요한일서의 목적 구절들과 연관이 있다.<sup>16)</sup>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사귄(코이노니아)인가, 생명(조에)인가의 논쟁이 오랜 기간 동안 신약학자들 내에서 있어온 것이다.

학자에 따라 1:3의 코이노니아가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 생각하는 이들(라이리, 볼트만, 말라테스타, 미첼, 퍼킨스, 하지 등)과 5:13의 조에가 요한일서 전체의 목적을 더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이들(칼빈, 웨스트코트, 다드, 스토트, 부르스, 류, 브라운, 마샬 등)로 나뉜다.<sup>17)</sup> 각각은 다른 쪽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거나 자신들이 주장하는 목적 주제에 다른 것을 부속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코이노니아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드는 근거는 초두에 나온 목적이 훨씬 독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는 것, 본문에 '거한다', '안에 있다'는 등의 반복적인 표현이 코이노니아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 '사귄'이라는 주제가 '생명'의

16) 목적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표면적으로는 이 두절 외에 더 있다(1:4; 2:1, 8, 12-14, 21, 26). 그럼에도 위의 두 구절이 주목이 되는 이유는 다른 구절들은 이 두 구절의 경우보다 본문 내의 기능으로 볼 때 중요도가 떨어지고 또한 이들과 가까운 문맥에 더 묶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7) 여기서는 지면 관계 때문에 언급된 학자들과 책들을 소개하지 않았다. 어느 책을 보더라도 학자들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를 포함하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 등을 강조한다. 반면에 조에를 우선 시 하는 학자들은 요한복음도 목적 구절(20:31)이 후반에 있다는 것과 요한일서에 반복된 용어인 '안다'라는 단어가 이 생명의 주제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구원론적 측면에서 본문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학자들은 한 쪽 편에 서서 다른 한 쪽을 종속시키려 한다.

1993년의 데릭슨의 글<sup>18)</sup>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자 쓰였다. 그는 코이노니아 우선 논리와 조에 우선 논리를 비평적으로 검토한 끝에 두 가지 모두의 문제점들을 끌어내어 이 두 가지 주제 모두 요한일서를 푸는 중추적인 용어들이 될 수 없다고 단정지었다. 그런데 데릭슨의 문제는 그가 본문 자체의 흐름과 언어적인 궤적을 면밀히 검토하는 일보다, 요한일서를 변증적인(polemical) 문서로만 보고 코이노니아 - 조에에는 별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스멜리의 주장<sup>19)</sup>을 그의 전제로 삼고 앞의 논쟁을 바라보았다는 데 있다. 안타깝게도 데릭슨은 코이노니아 - 조에 이슈를 스멜리의 변증적인 주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이 두 이슈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기독교론과 관련된 요한일서의 변증적인 목적만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비록 데릭슨의 글이 코이노니아 - 조에 이슈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드러내는데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저자에 의해서 명백하게 제시된 이 두 용어와 연관된 목적 구절들(1:3과 5:13)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 4.2. 코이노니아 - 조에의 다른 유사 용어들과의 상관성

특정 본문 내에서 상관 관계를 갖는 용어들, 특히 의미가 반복되는 효과를 갖는 용어들을 분류해서 분석해 보면, 저자가 어떤 뜻을 가장 중요하게 또 어떤 방식으로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코이노니아와 조에를 우선하여 이 두 용어를 중심으로 상관성을 갖는 용어들을 조사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본문에 드러난 목적 구절들을 요약한 용어가 되기 때문일 뿐 아니라, 이 두 가지 의미들이 서문(1:1-4)과 결문(5:13-21)<sup>20)</sup>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코이노니아 - 조에'의 목적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면 이 두 용어는 본문에서 동일한 표현이든 유사한 뜻을 가진 다른 용어들을

18) G. W. Derickson, 'What is the Message of 1 John?', *Bib Sac*. 150 (1993) pp. 89-105.

19) S. S. Smalley, *1,2,3 John, Word Biblical Commentary 51* (Waco: Word, 1984). 특히 15쪽을 보라.

20) 1:2의 조에와 1:3의 코이노니아를 보라. 또 결문에서 조에는 5:13, 16, 20에서 강조되고 있다. 코이노니아라는 용어가 결문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5:14-15, 18-20은 하나님과의 교제(코이노니아)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사용하든 반복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스택은 용어 코이노니아가 요한일서에서 1:3,7외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그 주제는 서신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2:5,6,24; 3:24; 4:13; 5:20)고 지적하였다.<sup>21)</sup> 그가 코이노니아를 본문의 다른 용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한 것은 상당히 옳은 것이다. 다만, 그는 이 연계성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보았다. 의미적으로 연결된 표현들이 이보다 많기 때문이다. 또한 류는 ‘하나님과과의 사귄’을 ‘종교적 경험의 언어’라 설명하면서<sup>22)</sup> 이 개념이 요한일서에서 ‘아는 것’, ‘남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함’, ‘거하는 것과 가지는 것’, ‘성령’ 등의 용어와 관련되어 있다고 정확히 지적하였다. 다만, 코이노니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수직적 개념 외에 사람 사이의 수평적 코이노니아 개념을 간과한 문제가 있다. 말레타스타는 ‘~안에 있다’(22회)와 ‘~안에 거하다’(18회) 등이 반복된 것은 저자가 요한일서에서 ‘내면성’(interiority)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으나<sup>23)</sup> 코이노니아-조예와의 연계성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용어들의 상관적 관계들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요한일서 연구에 있어 이미 부분적으로 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코이노니아와 조예가 여타의 다른 용어들과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살피기 전에 먼저 이 두 용어의 용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기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용어가 요한일서의 다른 용어들이나 내용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즉 저자가 이 두 용어의 의미를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부각시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3의 코이노니아의 사용은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vertical relationship)를 또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horizontal relationship)의 코이노니아를 보여준다. 수직적인 관계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귄’(ἡ κοινωνία ... μετὰ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μετὰ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수평적 교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사귄’은 ἡ κοινωνία δὲ ἡ ἡμετέρα를 써서 강조적으로 표현했다.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

21) F. Stagg, ‘Orthodoxy and Orthopraxy in the Johannine Epistles’, *Rv Ex.* 57(4) (1970), p.429.

22) J. Lieu, *New Testament Theology: the Theology of the Johannine Epistles* (Cambridge University, 1991), pp. 31-49.

23) E. Malatesta, *Interiority and covenant: A Study of Einai En and Menain En in the First Letter of Saint John* (Rome: Biblical Institute, 1978).

를 사실상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이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요한일서에서 하나 없는 다른 하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둘 사이의 구분을 명료하게 해두면 유사한 용어들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두 관계가 여러 가지 유사 표현들을 통해 본문에서 각각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에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요한일서에서 조에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명칭(1:2; 5:20)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를 믿는 이들이 받는 구원으로서의 생명(2:25; 3:14; 5:11-13 등)을 뜻하기도 한다. 결론의 시작절인 5:13은 후자의 경우로 쓰인 반면, 서문에서는 전자의 경우로 쓰였다. 이 또한 둘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을 가진다. 인격화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그로부터 구원의 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다.

### 4.3. '코이노니아 - 조에'의 상관성 연구의 결과

#### 4.3.1. 네 가지 개념과의 상관적 표현들

이렇게 볼 때 코이노니아-조에는 각각 두 가지씩 나눠 분류할 수 있다. 코이노니아는 수직적 사귄과 수평적 사귄으로, 조에는 아들을 가리키는 생명과 그를 믿을 때 받는 생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같은 네 가지 개념들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같은 용어로 또는 다르지만 유사한 표현으로 즉 서로 연관성이 있는 용어들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게 되면 저자가 서신을 쓴 목적인 코이노니아-조에 이슈를 보다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문 전체를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네 가지 개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1) 수직적 사귄

수직적 사귄(하나님과 코이노니아)은 주로 하나님과 신자들의 상호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데 '거하다'(2:6,10,14,17,24,27-28; 3:6,9,15,17,24; 4:12-13, 15-16), '안에 행하다'(1:7; 2:6), '안에 있다'(1:8,10; 2:4-5,8-9; 4:4; 5:11,20) '속하다'(3:10,19; 4:1-4,6-7; 5:19), '알다'(2:3-4,13-14,21; 3:16; 4:2,6,8,16; 5:20 등), '용서하다'(1:9), '고백하다'(1:9; 4:3), '사랑하다'(2:5,15; 3:1,16-17; 4:7-12,16-21; 5:1-3), '그로부터 낳다'(2:29; 3:9; 4:7; 5:4,18), '자녀'(3:1,10; 5:1-2), '씨'(3:9), '기름부음'(2:20,27), '아들이 오심'(3:8; 4:10,14; 5:20), '아들을 경험함'(1:1-3; 4:14), '하나님의 증거를 받음'(5:9-11), '아들을 믿음'(3:23; 4:15; 5:5,10,13) '아들을 가짐'(5:12) 등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용어들은 동의적으로 또 상관적으로 하나님과 독자들의

수직적 사귀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 쓰이거나 현재 되어진 것을 굳게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 (2) 수평적 사귀

수평적 사귀(사람들과의 코이노니아)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는데 하나는 저자와 독자와의 사귀를 강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자들 상호간의 형제적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된 용어들은 저자와 독자들을 묶어 함께 쓰는 대명사 '우리'(예컨대, 1:9-10; 2:1,3 등을 보라)를 쓸 때 특히 나타난다. 또한 '내(우리)가 너희에게 쓴다'(1:4; 2:1,7-8,12-14,21,26; 5:13)라는 표현, 독자들을 부르는 호칭들('사랑하는 자들아'- 2:7; 3:2, 21; 4:1,7, '형제들아'-3:13, '나의 자녀들아'-2:1, 12-14,28; 3:7,18; 4:4 등), '우리'가 함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는 표현들(2:3,18; 3:2,14,16,19,24; 4:6,13,16; 5:2,15,18-20), 독자들을 격려하는 표현들(특히 2:12-14와 5:13을 보라), '우리'와 '그들'(대적자)을 대조하고 '나'와 '너희' 또는 '우리'와 '너희'를 묶는 스타일들(이것은 요한일서의 전반적인 현상이다), 명령하고 권하는 일(2:6,15,24,27-28; 3:7,12-13, 18; 4:1,7,11,21; 5:21) 등에서 나타난다. 이와 함께 독자들 상호간의 형제적 사랑은 '그의 계명'을 강조하며 서로의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주로 2:3-11; 3:11-24; 4:7-12; 4:16-5:3)에서 찾아진다.

요한일서에서 수직적 사귀의 중요성은 보통 명백하고 직접적인 형태로 강조된다. 반면에 수평적 사귀는 간접적이고 밑에 깔려 있는 형태로 전달된다. 그러나 저자가 수직적 사귀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특히 저자(또는 저자로 대표되는 사역자 그룹)와의 수평적 사귀가 함께 얻어진다. 그것은 저자(요한)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귀에 가깝게 서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하나님과의 사귀가 깊어질수록 저자-독자 관계도 강화된다.

## (3) 생명이신 아들

생명이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과 그의 존재에 대한 언급들, 예컨대, '생명'(1:2; 5:20),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1:1),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1:3,7; 2:22-24; 3:8,23; 4:9-10,14-15; 5:5,9-13,20),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1:7; 2:1-2; 3:5), '대언자'(2:1), '하나님'(5:20)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항이 나올 때마다 독자들은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도록 격려 받는다.

## (4) 믿음으로 얻는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조에는 '생명'(1:1; 2:25; 3:14-16; 5:11-13,16), '깨끗케 함, 용서함'(1:7,9; 2:2), '거함'(위의 것 참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3:1,10; 5:1-2), '하나님께로 남'(위의 '남다'를 참조), '미래의 변화'(2:28; 3:2), '하나님께 속함'(위의 '속하다' 참조), '기도응답'(3:21-22; 5:14), '기쁨부음을 받음'(2:20,27),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3:24; 4:13), '확신'(2:28; 3:21; 4:17), '완전한 사랑'(4:12,18), '승리'(2:13-14; 5:4-5), '아들(아버지)을 소유함'(2:23; 5:12) 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표현들은 아들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서로의 의미들과 관련하여 상관성을 가진다. 독자들은 모두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이 강조되고 격려된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이들로, 또 그 분으로부터 생명 등을 얻은 '우리'(저자와 독자)와 '너희'(독자들)를 '저희'(대적자)들과 명확히 구별하여 독자들에게는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릇된 이들을 경계하는 두 가지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연결된, 그리고 유사한 표현들을 적절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4.3.2. '코이노니아 - 조에'와 상관된 용어들이 반복되는 이유

이렇게 볼 때, 저자가 코이노니아 - 조에의 목적을 본문을 통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이노니아의 반복적인 강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확신케 할 뿐 아니라 보다 더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저자 - 독자간 또는 형제간의 수평적 관계의 강조는 '우리' - '너희'(또는 '너희' - '너희')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너희' - '저희' 관계를 분리시켜 내적으로 더 든든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이 신앙 공동체(요한 교회)는 현재 역사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대적자)<sup>24</sup>들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직적 코이노니아와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밀접히 연계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복해서 강조된다.

이런 점은 조에의 강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조에의 강조는 저자('나', '우리')와 관련해서는 생명되신 주님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저자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독자들('우리', '너희')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와의 공고한 관계와 그로 인한 명백한 상급(영생 등)이 그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대적자들('저희')과 관련해서는 그들과 조에와 무관함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렇게 볼 때 조에의 강조

24) 요한일서의 저자는 대적자들과 관련해서 '적그리스도'(2:18), '거짓말 하는 자'(2:4, 22), '미워하는 자'(2:9, 11),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2:22), '미혹케 하는 자'(2:26; 3:7), '거짓 영'(4:1), '적그리스도의 영'(4:3) 등으로 불렀다.

역시 저자와 독자의 연합됨을 재확인할 뿐 아니라, 독자와 대적자들을 떼어내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4.3.3. ‘코이노니아 - 조에’, 두 용어의 상관성

그러므로 코이노니아와 조에는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여도 그 목적하는 바가 중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두 용어가 다른 유사 용어들과 상관적인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두 용어 상호간에도 교류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저자가 양괄적인 목적 구절을 통해 두 용어를 사용할 때 이 두 가지를 따로 따로 분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이 두 용어의 의미 내용이 완전히 서로 부합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이 둘은 중첩-보완적 관계이지 부합-일체적 관계는 아니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즉,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안에서 조에의 기반이다. 코이노니아로 조에가 있음을 안다. 또 조에가 있어서 코이노니아가 가능해졌다. 패니쿨람은 조에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 사귀의 진정한 근원’<sup>25)</sup>이라 했다. 이렇듯 코이노니아와 조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또한 본문 내의 기능에 있어서도 상관성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코이노니아의 목적 구절인 1:3이 서문(1:1-4)에서 5:13이 결론(5:13-21)에서 목적 구절로서 각각 강조되는데 앞의 1:3(4절은 부속된다)이 그 다음 단락(1:5-2:2)에, 5:13은 그 앞의 단락(5:4-12)에 주제로나 용어 사용에서나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두 목적 구절이 저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서문과 결론에 각각 배치되었음을 의미한다. 코이노니아 목적 구절은 앞에서 뒤로 연결시켜 주면서 본문에서 코이노니아 관계를 강화시켜 가는데 중점을 두는 기능을 가진 반면, 조에 목적 구절은 결론을 그 앞의 내용들과 연결시키면서 (또는 뒤에서 앞으로 향하는 역할로서) 저자의 목적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 4.4. ‘코이노니아 - 조에’ 우선권 논쟁의 해결

이 같은 상관적 연구는 코이노니아-조에의 우선성 논쟁에 해결의 빛을 던진다.

첫째, 코이노니아와 조에는 본문 내에서의 기능이 공통적이고 서로가 목적 구절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양괄적 목적 구절을 의도적으로 삼입함으

25) G. Panikulam, *Koinonia in the New Testament: A Dynamic Expression of Christian Life* (Rome: Biblical Institute, 1979), p.133.

로써 코이노니아 - 조에를 각각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쪽을 강조하고 다른 쪽을 약화시키는 관점은 요한일서 이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닌 셈이다. 코이노니아와 조에는 어느 쪽이 대표성을 떨 수 없다. 둘 다 중요하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또한 코이노니아 - 조에의 목적 구절을 무시하고 서신의 변증적 성격만을 강조했던 스멜리와 데릭슨의 논점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 그것은 저자가 코이노니아 - 조에의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사한 많은 표현들을 본문 전반을 통해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할 때 분명해 진다. 또한 코이노니아 - 조에의 강조가 저자가 본문에서 의도하는 변증적 목적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양괄적 목적 구절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양괄 목적 구절들을 삽입했던 저자 자신의 의도가 의미론적 연구를 통해 부각될 필요가 있다.

셋째, 코이노니아 - 조에의 목적 구절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 둘 사이의 상관성에 주목할 때 우린 요한일서 연구를 더 온전히 해나갈 수 있다. 이 두 목적을 요한일서 본문의 모든 주제들과 이슈들을 이해하는 창문으로 사용할 때, 본문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 질 것임에 틀림 없다. 예컨대, 흩어져서 따로 따로 이해되기 쉬운 유사 용어들이 코이노니아와 조에라는 틀 속에 모여져 이해될 때 전체적으로 종합되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 5. 나가며

코이노니아 - 조에에 대한 동시적 - 상관적 연구는 본문 내의 다른 용어들 간의 의미의 연계성을 찾아 저자의 논지를 적절히 파악하려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즉, 본문 해석에서 의미 흐름의 맥을 잡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런 노력은 특히 특정 성경(예컨대 요한일서 같은)을 선택하여 해석하고자 할 때 적절하다. 그러나 성경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통시적 접근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당 용어와 주제가 어떻게 역사를 통해 의미의 흐름이 형성되었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 원문 연구는 이렇듯 동시적 - 통시적 연구의 상호 보완이 필요한 분야이다. 다만, 동시적 연구의 결과들이 이제까지 보다 더 많이 나와서 성경 원문 연구를 보다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